



3면

'살아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음 7월 9일) 제3565호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오는 22일 예정된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면 평가 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중훈 부지사, 박성태 원광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원광대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면평가 대응

### 전북자치도, 익산시·원광대·전북대와 머리 맞대 전북대의 경험 공유... 대학 비전 전달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원광대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면평가를 앞두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오는 22일 예정된 원광대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면 평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대의 성공적인 대면 평가 준비 경험을 공유하며, 원광대가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을 대면 평가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원광대에 대면 평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원광대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원광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대면 평가는 지자체, 산업체, 원광대 및 원광보건대 등에서 15명이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며, 7월 26일 제출된 '원광대 글로벌 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계획의 적절성, 성과 관리의 적절성,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나해 전북대 글로벌 대학 대면 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원광대가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원광대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고금리 장기화에 티메프 사태까지 '이중고' ... 도내 중기, 숭통 트이나 도, 85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100억원 특별자금 신설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긴급 대환자금 시행 신청은 12일부터... 추석 명절 특별안정자금은 19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명절 특별자금을 포함한 8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기업별 최대 3억원과 이자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에 한

정되었으나,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티메프 사태로 직접 혹은 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위한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거치기간 연장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도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지원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원금 상환 중이거나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에게 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과 2.0%~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긴급 대환자금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지원기업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의 대환자금을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경

영안정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명절자금은 당초 1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도내 기업의 자금 고민을 덜어주고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송주섭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어려운 고금리 상황에서 티메프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악재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특별자금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시작(명절자금은 19일부터)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jo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도 "폭염 대비 건강수칙 지켜달라"

### 온열질환자 발생 따라... "물 자주 마시기 등 실천해야"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진안에서 폭염 속 발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사망함에 따라 폭염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8월 8일까지 전북지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31명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으며, 열탈진 74명, 열경련 30명, 열사병 18명, 열실신 9명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명(1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94명(71.7%)으로 여성보다 더 많은 온열질환에 노출됐다.

온열질환은 주로 논밭(21.3%)과 실외 작업장(20.6%) 등 야외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오후 3시~4시(16.7%)와 낮 12시~오후 1시(12.2%) 사이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곳을 통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http://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올 가을철 전주시민을 마주한다.

지난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9~13일 5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시가 지난 1997년부터 개최한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10월 9~13일 개최

### 전통문화전당·종합경기장 일원서... 한지의 날 기념식 등 다채

(원장 김도영)과 함께 기획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규모를 확대하고, 주 행사장을 한국전통문

화전당과 전주페스타가 열리는 종합경기장으로 이원화해 각 장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먼저 공식 기념행사로서 올해 세 번

째로 맞는 10월 10일 한지의 날 기념식은 라한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행사에 앞서 9일부터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획행사가 시작된다.

종합경기장에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페스타2024' 일환으로 전주독서대전과 함께 전주의 맛을 테마로 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한지가 꾸며진다. /김재훈 기자



#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치즈테마파크